

특별기획

국민의당 군산지역위 워크숍 개최

내일까지 차기 의장 후보군들 간 난상토론 통해 의장단 구성 이뤄질 전망

합열읍 5개 기관단체 7월 2일까지 지역 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합열읍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김성우), 번영회(회장 윤응현), 이장단(회장 김동근), 부녀회(회장 노영분), 합열읍사무소(읍장 최용식)로 구성된 합열읍 5개 기관단체는 23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지역 내 주요도로변 릴레이 제초작업을 실시한다. 지난 20일 5개 기관단체장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 및 인도 가로수 주변과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교통 사거리의 잡풀을 제거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단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동오거리 ~ 합열 신협 ▲번영회는 원광보건대학교 사거리 ~ 합열여고 앞 ▲이장단은 원광보건대학교 사거리 ~ 합열역 ▲부녀회는 합열보건지소 ~ 심장생 앞 ▲합열읍사무소는 아사달공원 입구 ~ 성당 방면 철도육교에서 예초기, 낫, 호미 등을 활용해 10여명씩 모여 제초작업을 한다. 이번 릴레이 제초작업은 깨끗한 거리 조성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신재생자원센터, 익산소방서에 분말소화기 100대 기증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지난 22일 신재생자원센터(운영소장 임정순)로부터 화재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분말소화기(3.3kg) 100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단독·다세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역 설치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보방안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저소득층 주택 화재예방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석 익산소방서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위해 도움을 주신 신재생자원센터 임정순 소장에게 감사드리며 기증받은 소화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에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농촌일손돕기

23일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직원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수면 소재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촌 일손돕기에는 농산물유통과 직원 12명이 참여해 약1,500원에 이르는 밭에서 감자와 양파 수확 및 선별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 오선환씨는 "잠마 예보로 감자와 양파 수확이 다급했는데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손을 거들어준 농산물유통과 직원들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고군산군도 일대 불법 건축 행위 다음달 8일까지 합동 지도점검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일대의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대대적 합동 지도점검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의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가 증가한다고 판단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안경관과 다양한 전설로 대표되는 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명품관광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최근 건축된 무허가 상업용 건축물,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및 공유수면 무단점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질 군산시 하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세력 다툼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하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원내 제1당인 국민의당 군산지역위원회 워크숍이 오늘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부안 농협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실상 차기 의장 후보군들 간의 난상토론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 등 의장단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반기 의장 선출의 경우 선거를 앞둔 당직자 워크숍에서 의장단을 구성, 현재 상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들은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포심 잡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인 김관영 의원은 개별 의원을 면담 하반기 의장 출마 후보들에 대해 운영계획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워크숍에서 사실상 하반기 의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워크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의 인품됨을 따져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후보자 가운데 국민의당은 진화완 박정희 정길수 신경용 등 4명이며, 더민주당은 김경규, 김성곤 의원 등 2명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에너지자립화사업 탄소 배출권 확보

유엔 온실가스 감축사업(P-CDM) 등록...8년간 2억 4,800만원 가치 예상

군산시는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이 유엔(UN)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P-CDM)에 등록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P-CDM은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일괄해 유엔에 등록하고 향후 추진되는 개별 사업들을 추가해 배출권을 인증 받는 체제를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사고팔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어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3100만원으로 8년간 2억 4800만원의 가치가 있다.

군산시의 P-CDM 사업기간은 2024년

까지이며, 올해부터 연 평균 1564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엔으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다.

군산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2012년 환경부 공모사업 유치로 총사업비 51억원(국비 35억 7천만 원, 시비 1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슬러지 건조시설의 보일러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P-CDM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군산시는 대표적 기후변화 유망물질인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제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환 군산시 하수과장은 "군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유엔의 P-CDM사업에 등록됨에 따라 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이슈이자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시행,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할당량보다 더 감축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선유도 다음달 초 100톤급 여객선 에버그린 호 투입

다음달 8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감척 논란이 제기됐던 군산~선유도 간 항로에 100톤급 여객선 투입이 확정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 초부터 군산~선유도를 오가는 항로에 신한호 소속 에버그린 호를 투입키로 했다.

에버그린 호는 대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예비선으로 지난해 장지체호호 수리 당시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항로를 운항한 바 있다.

군산해수청은 이후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운임 요금표 확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군산~선유도 항로는 진달래호 2항차, 목도해리호 2항차 에버그린호 2항차가 운항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해수욕장 관광객 감소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군산해수청은 이 항로를 오가던 A선사의 여객선 진달래호(82톤)에 대한 면허를 내달부터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15일 선유도 주민들이 군산해수청을 방문해 항의집회를 가진 바 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상 선사인 항로 여객선(들) 총톤수는 100톤 이상이 되어야만 진달래호는 그 기준에 미달했다.

결국 A선사가 여객선을 임대, 군산~선유도 항로 여객선에 대한 총톤수를 충족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A선사 관계자는 "새 여객선 투입으로 해운법에 명시된 여객선 총톤수를 넘기게 돼 진달래호까지 운항이 가능해졌다"며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정헌율 익산시장이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현안을 직접 챙기고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시의 주요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가예산 지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익산의 현안사업인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과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구축,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등의 국가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이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김관영 의원(군산), 김중회(김제, 부안), 유성열(정읍,고창) 이 용호(남원,임실,순창)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 등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고자원을 요청했다.

익산시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과 소스 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통해 섬유산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사업 전초기지로서 거듭날 전망이다.

정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지역 국회의원과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 이상열교수팀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원광대학교 병원(병원장 최두영) 이상열(사진), 최석재, 류한승 교수 연구팀이 한국정신신체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소화기내과 공동 연구팀은 "한국중년 여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증폭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최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 한 영예를 안았다.

특히 원광대병원 소화기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스트레스 클리닉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능성 소화불량증 과민성 장 증후군 기능성

번비, 위식도역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협진 진료와 연구 모델을 만드는 등 이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는 한국정신신체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학회발전과 연구에 공헌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향후 2년간 학회 이사장으로 연임, 이번에 취임함으로써 경계사를 맞았다.

한국정신신체학회는 '비음-몸'의 상호작용과 이에 의한 질병을 진료하고 연구하며 800여명의 정회원과 한국연구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일본 및 중국과의 학문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회다.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의회에서 생물-정신-사회적 특성(심신의학)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는 학회이기도 하다.

/익산=장양원기자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원광대병원 교수연구동 5층 소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방감상선외과에서 유방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개최 했다.

원광대병원, 여성 암 환우들 메이크업 강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에서 여성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열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 행사가 뜨거운 관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원광대병원 교수연구동 5층 소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방감상선외과에서 유방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개최 했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 행사는 암 치료 과정에서 외모의 변화로 상실감을 경험하는 여성 암 환우들의 상실감 극복과 자신감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매년 유방감상선외과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주)아모레퍼시픽사의 사회 공헌 캠페인이기도 한 본 행사는 암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여성암 환

우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에서부터 질감이 있어도 자신 있게 연출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화장법등 여성 암환우들의 자신감을 고취 할 다양한 방법들은 물론, 직접 메이크업을 시연 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500(40세, 익산시 동산동 거주)씨는 "암 투병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도 있지만 여성으로서 느끼는 자존감의 상실은 삶을 포기 할 만큼 괴로운 시간들이었다. 어쩌다 오게 된 오늘 행사에서 나도 아름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면서 질한도 잊을 만큼 기쁜 마음을 안고 간다"는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활동 '성과'

특정기술이 없고 질병과 자녀양육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인생 제2막을 준비 중이다.

군산시 소통동에 거주중인 A(30·여)씨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한 부모가정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공공요금 및 임대료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의 형편을 알게 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해소와 임시생활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센터 사례관리 연계로 통해 A씨는 자녀양육부담을 덜게 됐으며, 고

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해 직업훈련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됐다.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센터, 고용복지지원팀,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연계해 청년실업자,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복지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조촌로 62(구,군산고용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상반기 225건의 복지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10건 기초생활보장 책정 15건,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10건과 각종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군산=문정근기자